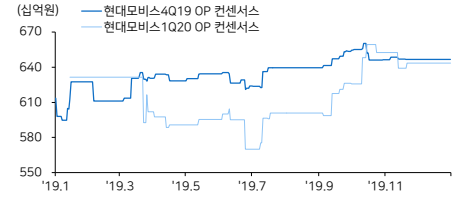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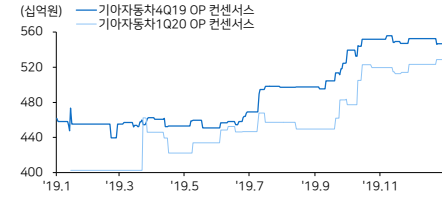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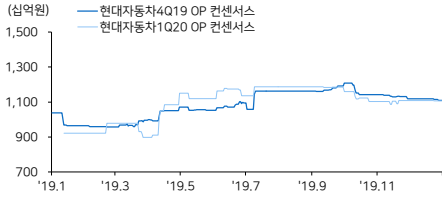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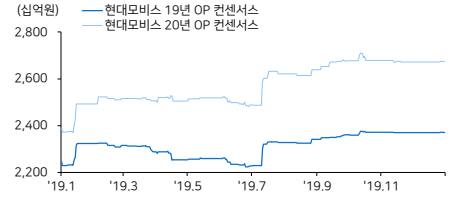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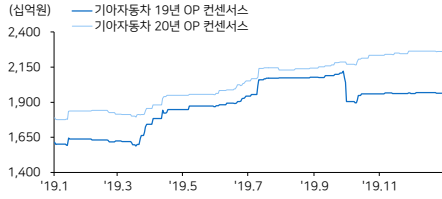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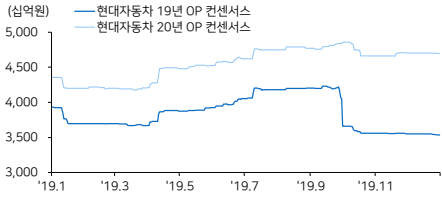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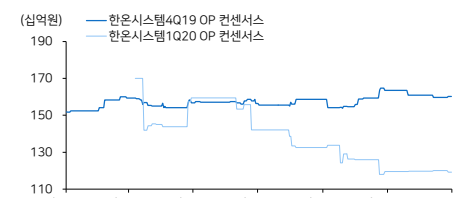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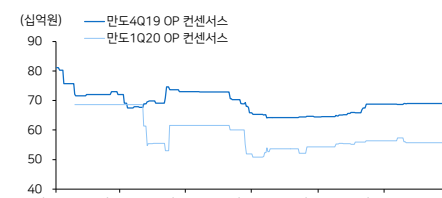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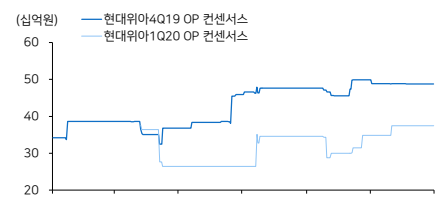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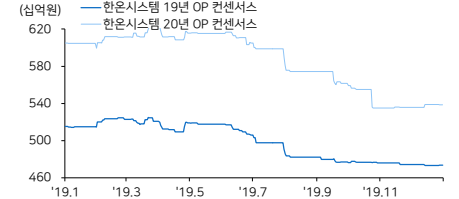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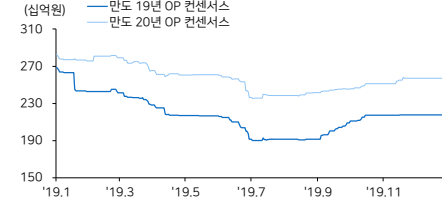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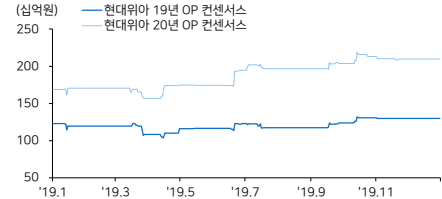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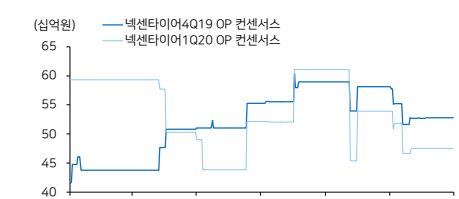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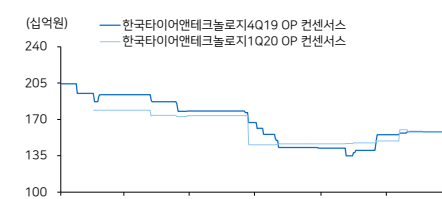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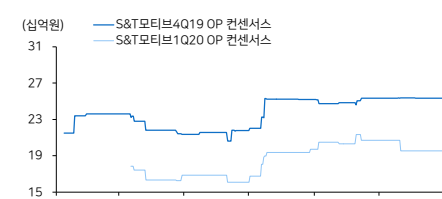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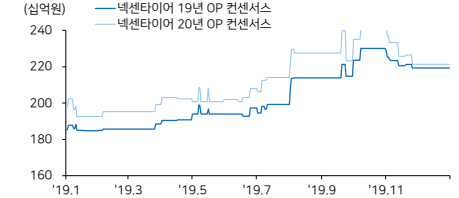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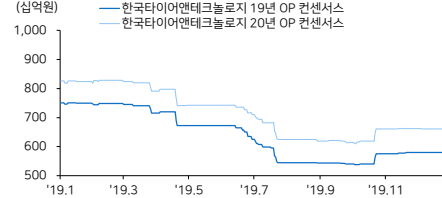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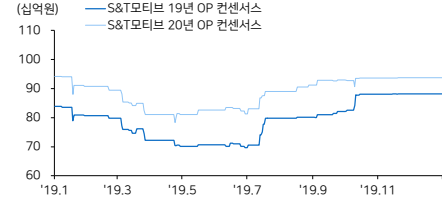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 SUV로 시장 확대 가속도... '2025년 100만대 목표' (아이뉴스24)

현대자동차가 미국 시장 확대를 위해 현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SUV 모델에 힘을 실을 예정.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제네시스를 포함한 현대차의 미국 시장 판매량을 연간 100만 대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목표. <https://bit.ly/2NieXgd>

'제네시스, 전기차 포함해 라인업 2배 늘어난다' (한국경제TV)

마크 델 로소 제네시스 북미 담당 CEO가 "제네시스는 2021년 내로 세단 3종 SUV 2종, 전기차 1종까지 라인업을 늘릴 것"이라고 밝힘. 마크 델 로소 CEO는 "현재 브랜드를 격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이와 같이 밝힘. <https://bit.ly/30m6n5G>

웨이모 '차량 자율주행 택시' 도로 달린다 (전자신문)

정부가 구글 '웨이모' 차량 자율주행 택시가 다니는 시범 지역을 늘 하반기에 선정. 정부는 자율주행 실증 사업을 올해부터 서비스 개발 중심으로 바꾸는 등 비즈니스 모델 검증에 정책 목표를 맞춤. <https://bit.ly/30m6n5G>

알리바바, 중국제일자동차그룹(FAW Group)과 제휴를 맺고 지능형 커넥티드 차량(CV, Intelligent Connected Vehicle) 개발 및 자동차 산업 내 디지털 인텔리전스 활용 확대에 나선다고 밝힘.

개발 및 자동차 산업 내 디지털 인텔리전스 활용 확대에 나선다고 밝힘. <https://bit.ly/3a107aN>

현대차 애플인 CEO '싼타 크루즈 내년 하반기 출시...연 4만대 생산' (데일리경제)

현대자동차가 가장 미국적인 차로 불리는 픽업트럭 '싼타 크루즈'를 내년 하반기 미국 시장에 내놓을. 이를 통해 기존 쉐리 세이드, 싼타페, 투싼, 코나, 베뉴와 함께 미국 시장에서 급성장 중인 RV(SUV 포함) 라인업을 강화한다는 전략. <https://bit.ly/2QL6h48>

'현대차 만큼 받아야 한다'...기아차 노조, 13일부터 부분 파업 돌입 (동아일보)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부분 파업에 돌입. 사측과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상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새해부터 파업 카드를 꺼 내든 것. 12일 출애 새로운 일기를 시작하는 기아차 신임 노조 집행부는 13~17일 부분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힘. <https://bit.ly/35LrJwK>

폭탄세일의 위력...'볼매' 前 수준 회복한 일본차 (디지털타임스)

일본차 업계가 작년 불매운동 파고를 넘고 두 자릿수 점유율을 지키는 데 성공. 한국수입차협회에 따르면 작년 국내서 팔린 일본차는 3만6661대로, 전년보다 19% 줄어든 것으로 집계됨. <https://bit.ly/2FJhIlg>

전기차, 2035년 전세계 시장에서 중국이 50% 점유...상하이 저널 (데일리경제)

후지경제의 예측 보고서에서 오는 2035년 전세계 EV 시장은 2202만 대로 2018년의 16.9배에 달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전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의 점유율이 50%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옴. <https://bit.ly/37Y02ho>

Compliance Notice

본 조사항목은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항목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 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항목은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